

- 주요 뉴스: 미국 7월 비농업고용, 시장 예상을 하회하며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 강화
 - 월가 주요 투자은행, 연준의 금리인하 전망치를 매파적으로 수정
 - 블랙 프라이데이(8.2일), 미국 경기침체 우려로 글로벌 증시 급락
 -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, 대의원표 과반 이상 확보로 민주당 대선 후보 유력
 - 국제금융시장: 미국 비농업고용 부진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부각되며 위험회피 확산
 주가 하락[-1.8%], 달러화 약세[-1.2%], 금리 하락[-19bp]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미국 경기둔화 우려 및 AI·기술주 조정 등으로 하락
 유로 Stoxx600지수는 트럼프 리스크, 반도체 공급망 우려 등으로 하락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연내 연준의 금리인하폭 전망 상향 등으로 하락
 유로화 가치는 1.1% 상승, 엔화 가치는 1.9% 상승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미국 경기침체 진입 가능성으로 큰 폭 하락
 독일 10년물 국채금리는 미국 경기 냉각 우려 등으로 하락
- ※ 뉴욕 1M NDF 종가 1,356.02원(스왑포인트 감안 시 1,358.47원, 0.2% 상승), 한국 CDS 상승

		8/2일	8/1일	전일대비			8/2일	8/1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5,346.6	5,446.7	-1.84%	국채 금리 10y	미국	3.79	3.98	-19bp
	유럽	497.85	511.83	-2.73%		독일	2.17	2.24	-7bp
	중국	2,905.3	2,932.4	-0.92%		영국	3.83	3.88	-5bp
	일본	35,910	38,126	-5.81%	CDS 5y	한국	36bp	35bp	+1bp
	한국	2,676.2	2,777.7	-3.65%		중국	68bp	65bp	+3bp
환율	달러지수	103.21	104.42	-1.16%	위험 지표	EMBI+	436	423	+13bp
	유로화	1.0911	1.0791	+1.11%		VIX	23.39	18.59	+25.82%
	엔화	146.53	149.36	+1.89%	원자재	WTI유	73.52	76.31	-3.66%
	위안화	7.1722	7.2450	+1.00%		구리	410.3	408.3	+0.50%
	원화	1,356.0	1,369.8	+1.01%		금	2,443.2	2,446.3	-0.12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종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7월 비농업고용, 시장 예상을 하회하며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 강화

- 비농업 고용자수는 +11.4만명으로 예상(17.5만명)을 큰 폭 하회하고 3개월 연속 둔화. 실업률은 전월 4.1%에서 4.3%로 상승하여 실업률의 3개월 이동평균이 지난 12개월 동안의 최저치보다 최소 0.5%p 상승할 때 발동되는 Sahm Rule이 발동
- 비농업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저조(지난 12개월 동안의 평균 증가율은 21.5만개)하게 발표되면서 연준이 금리인하를 통한 차입비용을 낮추는 데 너무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
- 노동수요 둔화 시그널로 인해 9월 FOMC에서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가 강화. 무디스는 연준이 7월 이전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했어야 하며, 9월 25bp 인하로는 충분치 않다며 50bp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
- CME FedWatch Tool, 9월 FOMC 회의에서 50bp 금리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기존 22%에서 69.5%로 급등
-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시장참여자들은 고용지표 발표 이전에 올해 총 75bp의 인하를 예상. 고용지표 발표 이후로는 올해 100bp 이상을 예상하는 베팅이 늘었는데, 이는 올해 남은 FOMC 회의가 3번뿐인 상황에서 최대 50bp 인하가 두 번 있을 수 있음을 시사
- 한편, Bank of America는 미국 경제가 냉각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아직 균열이 생기지는 않았다고 평가. 하지만 근시일 내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원치 않는 경기침체를 고래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월가 주요 투자은행, 연준의 금리인하 전망치를 매파적으로 수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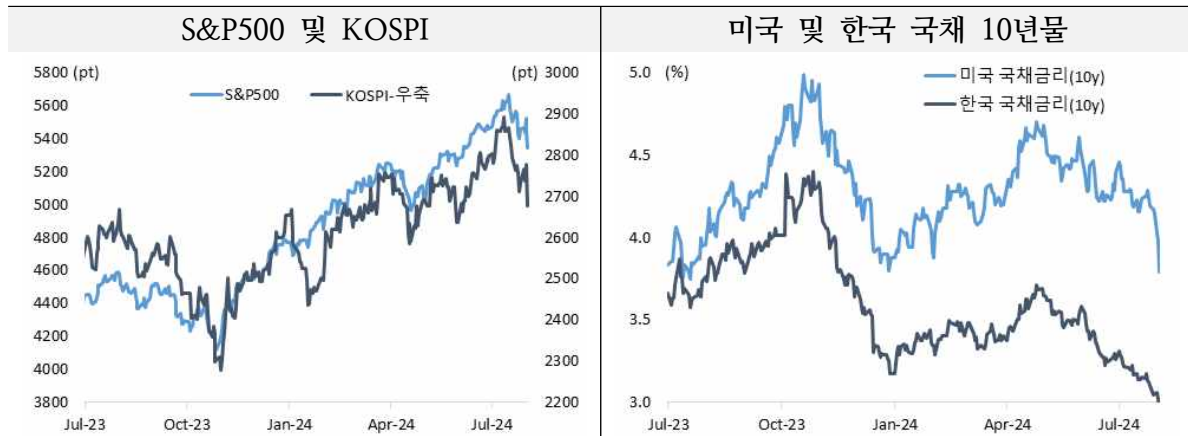
- Cit는 연준이 9월과 11월에 각각 50bp씩 두 번 인하하고, 12월 25bp 인하해 정책금리가 3.00~3.25% 범위에 오는 시점인 '25년 중반까지 매번 최소 25bp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(기존 금리 전망은 올해 3회 25bp씩 인하)
- JP Morgan도 올해 금리 전망을 9월 50bp, 11월 50bp 12월 25bp로 예상. 내년 이후에도 정책금리가 더 이상 성장을 제한하지 않는 중립적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모든 회의에서 25bp 인하해야 한다고 평가

- **블랙 프라이데이(8.2일), 미국 경기침체 우려로 아시아·미국·유럽 등 글로벌 증시 급락**
 - 밸류에이션 고평가 부담이 제기되었던 나스닥은 7월 최고치 대비 10% 이상 하락해 사실상 조정국면에 진입하였고, S&P500도 6.4일 이후 최저 수준으로 마감. 반도체 공급망 재편 우려로 일본, 한국, 대만 증시는 6%, 4%, 4% 급락. 유럽 증시도 -3%
 - 최근 AI 버블 논란 등 내러티브 약화 등으로 기술주가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금요일 아마존 주가는 과도한 AI 지출 우려로 8.8% 하락하고 인텔은 1.5만명의 인력 감축과 4분기부터 배당금 지급 중단 계획 등 우울한 전망으로 26% 급락
- **카말라 해리스 부통령, 대의원표 과반 이상 확보로 민주당 대선 후보 유력**
 - 해리스는 온라인 호명투표 이틀차인 금요일 대의원 99%(3,923명)의 지지를 얻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짐. 당 지도부는 시카고에서 열리는 8월 19~22일 민주당 전당대회 전인 8.7일까지 대선 후보를 공식 발표하겠다고 약속
- **중국 국채수익률,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사상 최저치 기록**
 - 디플레이션 압력 지속, 내수 부진 등으로 GDP 목표 달성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인민은행의 금리인하 및 대규모 국채 매수 등으로 10년물 장기금리가 8.1일 목요일에 2.13%로, 30년물 장기금리도 2.37%로 하락
- **미국 6월 공장재 수주, 2개월 연속 둔화**
 - 6월 공장재 수주는 전월 0.5% 감소한데 이어 6월에는 3.3% 감소한 5,642억 달러로 집계. 미국산 제품에 대한 신규 주문은 예상보다 크게 감소했으나, 비국방 자본재에 대한 기업의 지출은 비교적 견조
- **BoE 수석 경제학자 휴 필, 11월 추가 금리인하 기대를 일축**
 - 임금 및 서비스 부문의 물가상승세가 아직 높아 디플레이션 진전(22.12월 CPI 10.3%→`24.6월 2.1%)을 확신하기는 아직 이르며, 추가로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발언. 금주 목요일 정책금리가 5.25%에서 5.0%로 인하된 데 이어, 시장참여자들은 11월 추가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

주요 경제지표 발표

- 미국 7월 비농업 고용자수: 11.4만명, 전월(17.9만명), 예상(17.5만명)
- 미국 7월 실업률: 4.3%, 전월(4.1%), 예상(4.1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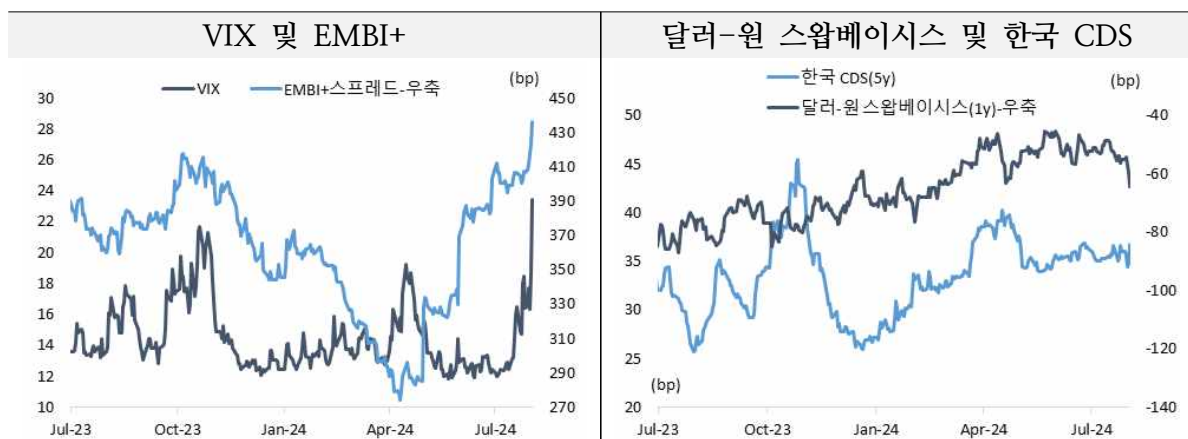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25, E-mail kimhj@kcif.or.kr